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는 세계화 및 지식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유기적 정보제공을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생존요소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진흥회에서는 전기산업이 모든 제조업의 기간산업임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업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0년부터 계간으로「전기공업」을 발간하여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전기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전기산업」지와 병행 발간되어 오면서 업계에 충실한 정보 전달지로 역할을 해 온 「News-Letter 전기공업」은 지난 2000년부터는 「전기산업」지와 통합되면서,

단순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전기산업 명예기자 제도”를 운영하여 업계의 생생한 현장소식과 그 발간자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양방향 매체로 성장하여 우리 전기업계 각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세계화, 개방화를 선도하는 길잡이로서 그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업계는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내수부진과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등과 같은 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와 전력시장 개방 압력,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환경친화

적 설비요구 등의 시대적 변화요구에도 대처해야 하는 이중고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러한 어려운 주변 여건속에서도 「2004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 Korea Power-Gen 2004」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가에 다시 한번 저희 진흥회 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호는 전시회 특집호 발간을 통해 참가업체의 주요 전 상품 및 2005년 해외전시회 소개, SIEF 전시회의 미래 고찰을 통한 새로운 비전제시는 물론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등

다양한 국내의 전시산업 동향을 소개하는 특집내용으로 구성하여 이번 전시회가 우리 증전업계의 해외 수출활성화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저희 진흥회가 전력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 02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김준철



김준철 회장